

# 한일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교연구\*

이정희\*\*  
55barami@deu.ac.kr

유형숙\*\*\*  
hsyou@deu.ac.kr

이수분\*\*\*\*  
dltmqns@de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1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
| 2. 연구방법         | 3.2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
| 2.1 연구대상        | 3.3 국적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
| 2.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                            |
| 3. 연구결과         | 4. 논의                      |

主 題 語: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tourism related student),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한일 비교연구(Korea and Japan comparative study)

## 1. 서론

인생에서 청년기는 한 인간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요즘 대학생들도 사회진출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학업과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졸업 후 진로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56.2%로 겨우 절반을 넘는 정도에 불과하며(한국교육개발원, 2012), 취업 후 1년 이내에 조기퇴사 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의

\* 본 연구는 동의대학교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4AA379)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부교수, 주저자

\*\*\*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연구원, 교신저자

취업준비와 취업 후 조직적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떠한가?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창의적 사고(63.3%), 대인관계 및 팀워크(33.3%), 적극성 및 추진력(30.0%), 유연성 및 변화적응력(26.6%) 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승실·김현진·주경필, 2006). 그리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력이 조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셀프리더십 또는 셀프리더가 기업의 인재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용엽·양해술, 2012). 즉,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창의성, 혁신, 변화적응력 등이 중요하게 요구되며, 총체적 조직변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개인들은 셀프리더십 능력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Manz & Sims, 2001).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Manz & Sims(1986)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가 시도 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내면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자율적인 힘을 의미한다(Manz & Sims, 2001). 또한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self-direction)와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Manz, 1986; Manz & Neck, 1999; Manzs & Sims, 2001)으로 성과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Manz(1986)에 의해 셀프리더십이 개념화 되었을 때는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 2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가 이후 인지적 전략이 건설적 사고전략과 자연적 보상전략으로 세분화되었다(Neck & Manz, 1996).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동중심적 전략은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치별, 자기단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신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사고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 전략이다(Houghton & Neck, 2002). 셋째, 자연적 보상전략은 자신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나 내용을 자신의 일에 도입하거나, 일을 하면서 일의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Manz & Neck, 2004).

최근의 한국 연구들은 일반 기업, 서비스업, 간호, 유치원, 호텔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혜영·장인순·최승혜·박승미, 2014; 정태연·김미애·양희옥, 2013; 장영숙·김현미, 2013; 조원섭, 2013).

한편 한국과 일본의 관광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여,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원섭(2013)은 호텔종업원의 셀프리더십의 모든 요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오정학·육풍림(2010)의 연구에서도 카지노 종사원의 셀프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지역 리조트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이 근무의욕과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방동혁·권용주, 2013), 여행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명원, 2012).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셀프리더십 역량이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업무 및 조직적응력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관광분야와 같은 수요지향적이고 스카우트 형태의 직업이동이 많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은 한 직장에서의 적응을 넘어서 직업세계에서의 개인의 커리어 관리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 학습, 진로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진영(2013)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자연적 보상전략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영석·김명소(2010)는 여학생의 경우 셀프리더십과 기초직업능력,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상관이 있으며, 남학생은 리더십 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학습과 관련된 셀프리더십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교수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수신뢰는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석봉·임명서, 2012).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은 학업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민·심덕섭·양동민·최경주·노현재·김형진, 2011).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종찬·홍아정, 2013), 셀프리더십과 진로포부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이, 2010).

특히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셀프리더십이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셀프리더십 전략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심지연·이형룡, 2012).

한편 일본에서도 셀프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개관이 金井(1989)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본적인 조직문화에서 셀프리더십은 친숙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시대의 변천과 함께, 개인의 주체성과 재량, 자유도가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潮村·阿部·篠木·鈴木, 2009).

셀프리더십을 분석대상으로 실시된 실증연구가 일본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는데, 潮村 등(2009)의 연구에서 일본인 대학생들의 취업정보에 대한 수집행동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관계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불안의식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부(-)의 관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의 영향관계의 변수들을 규명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2000년을 전후로 관광관련 학과들이 다수의 대학에 개설되었으나 관광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개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유형숙·이수분·이정희, 2014), 특히 관광산업 분야로의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의 관광시장에서 비슷한 구조와 규모로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셀프리더십의 기초통계량과 하위요인별 순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3, 4학년인데, 저학년(1, 2학년)보다 고학년(3, 4학년)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사대상을 고학년(3, 4학년)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한 2개의 대학에서 일본 조사대상자는 동경과 오사카지역의 4개 대학에서 총 523명의 샘플을 수집하였다.

한국은 2012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201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토 후 부실 응답 사례로 확인된 7부를 제외하고 총 51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국적, 성별 및 학년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성별			학년		
	남자	여자	합계	3학년	4학년	합계
한국	119(45.6)	142(54.6)	261(100.0)	139(53.3)	122(46.7)	261(100.0)
일본	86(33.7)	169(66.3)	255(100.0)	171(67.1)	84(32.9)	255(100.0)
합계	205(39.7)	311(60.3)	516(100.0)	310(60.1)	206(39.9)	516(100.0)

## 2.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프리더십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Houghton & Neck(2002)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를 신용국(2009)이 한국대학생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 후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를 활용하였다.

셀프리더십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3개의 전략(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첫째, 행동중심적 전략에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자기목표 설정).’, ‘나는 과제를 잘 했거나 시험을 잘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자기보상).’,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가 실망스럽다(자기처벌).’, ‘나는 내가 학교나 학과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곤 한다(자기관찰).’, ‘내가 해야 할 일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둔다(자기단서).’ 등의 5개 하위요인,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연적 보상전략에는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데 관심이 많다.’,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건설적 사고전략에는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하곤 한다(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혹시 내 신념이나 가정들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본다(자기대화).’, ‘나는 평소에 내 기본 신념이나 가정들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해본다(신념과 가정분석).’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용국(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70 ~ .87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셀프리더십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6 ~ .91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 척도 전체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셀프리더십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alpha$	
행동중심적 전략	18	.86	.91
자연적 보상전략	5	.76	
건설적 사고전략	12	.87	

3)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의 평균이 3.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셀프리더십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의 관광계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기술통계량

구분	N	M	SD	순위
행동중심적 전략	258	3.49	.51	2
자연적 보상전략	260	3.51	.61	1
건설적 사고전략	258	3.47	.61	3
셀프리더십 전체	254	3.48	.47	-

3.1.1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행동중심적 전략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적 보상전략은 남학생(M=3.61, SD=.59)이 여학생(M=3.43, SD=.63)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설적 사고 전략 역시 남학생(M=3.57, SD=.62)이 여학생(M=3.43, SD=.59)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M=3.56, SD=.46)이 여학생(M=3.43, SD=.48)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구분	성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남	117	3.53	.51	1.15
	녀	141	3.45	.52	
자연적 보상전략	남	118	3.61	.59	2.39*
	녀	142	3.43	.63	
건설적 사고전략	남	118	3.57	.62	2.41*
	녀	140	3.38	.59	
셀프리더십전체	남	115	3.56	.46	2.31*
	녀	139	3.42	.48	

\*p<.05

### 3.1.2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를 분석할 결과,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자연적 보상전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은 4학년(M=3.59, SD=.55)이 3학년(M=3.40, SD=.47)에 비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적 사고전략 역시 4학년(M=3.57, SD=.59)이 3학년(M=3.37, SD=.61)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4학년(M=3.57, SD=.42)이 3학년(M=3.41, SD=.42)에 비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별 차이 검증

구분	학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3	139	3.40	.47	-2.92**
	4	119	3.59	.55	
자연적 보상전략	3	138	3.47	.59	-1.08
	4	122	3.55	.64	
건설적 사고전략	3	138	3.37	.61	-2.55*
	4	120	3.57	.59	
셀프리더십전체	3	137	3.41	.42	-2.70**
	4	117	3.57	.52	

\*p<.05, \*\*p<.01

### 3.2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이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셀프리더십 전체의 평균은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일본의 관광계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기술 통계량

구분	N	M	SD	순위
행동중심적 전략	251	3.31	.54	2
자연적 보상전략	252	3.62	.67	1
건설적 사고전략	249	3.28	.62	3
셀프리더십전체	248	3.41	.48	-

**3.2.1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구분	성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남	83	3.24	.55	-1.54
	녀	168	3.35	.54	
자연적 보상전략	남	84	3.57	.70	-.75
	녀	168	3.64	.67	
건설적 사고전략	남	82	3.29	.70	-.01
	녀	167	3.29	.59	
셀프리더십전체	남	81	3.38	.54	-.76
	녀	167	3.43	.46	

**3.2.2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 3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lt;표 8&gt;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별 차이 검증

구분	학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3	169	3.32	.54	.38
	4	82	3.29	.55	
자연적 보상전략	3	169	3.61	.63	-.16
	4	83	3.63	.76	
건설적 사고전략	3	167	3.27	.61	-.53
	4	82	3.31	.67	
셀프리더십전체	3	167	3.40	.47	-.30
	4	81	3.42	.52	

### 3.3 국적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셀프리더십의 평균이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하위 전략과 각 하위 전략별 하위요인들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전략별로 국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위 전략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행동중심적 전략은 한국(M=3.49 SD=.51)이 일본(M=3.31, SD=.54)에 비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설적 사고전략 역시 한국(M=3.47, SD=.61)이 일본(M=3.28, SD=.63)에 비해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셀프리더십 하위 전략 중 자연적 보상전략과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한일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국적에 따른 셀프리더십 하위전략별 차이 검증

셀프리더십	국적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일본	251	3.31	.54	-3.73***
	한국	258	3.49	.51	
자연적 보상전략	일본	252	3.62	.67	1.87
	한국	260	3.51	.61	
건설적 사고전략	일본	249	3.28	.63	-3.32**
	한국	258	3.47	.61	
셀프리더십 전체	일본	248	3.41	.48	-1.72
	한국	254	3.48	.47	

\*\*p<.01, \*\*\*p<.001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계열 대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261명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255명, 총 516명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연적 보상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순으로 셀프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은영(2014)의 연구에서 건설적 사고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순으로 나온 결과와 다르며, 권선영(2009)의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보상전략 순서와도 달라 일치된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 후속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공 계열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고, 4학년이 3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남학생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학생들 보다 앞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직업생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종찬·홍아정, 2013), 셀프리더십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밝힌 선행연구(심지연·이형룡, 2012)를 볼 때, 관광관련 학과 여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의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년별로 셀프리더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서 후속연구들을 통해 학년별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학년별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성별,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위요인에서도 셀프리더십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진행된 셀프리더십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우나, 3학년 재학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일본의 취업구조를 고려해 보면, 한국과 달리 3·4학년 별로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셀프리더십과 진로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의 논의이다. 향후 일본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전체 셀프리더십은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보면 한국이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 자연적 보상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대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사고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본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부단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셀프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일본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일에 몰입하고, 일을 하면서 일의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에 비해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학업에 대해서 보다 즐겁게 임하는 자세를 만드는 셀프리더십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특성은 유형숙·이수분·이정희(2014)의 진로적응성 비교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일본대학생들은 책임

감과 긍정적 태도가 높고, 한국대학생은 주도성과 직무내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劉亨淑·李貞姬(2007)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은 ‘지식·교양추구 및 즐거움 추구’를 위해 관광관련 대학에 진학한 경향이 높았으며, 한국 대학생들은 ‘장래준비’를 위해 관광관련 대학에 진학한 경향이 상당히 높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 관광관련 대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흥미를 중요시하여 대학교육에 임하며, 대학생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사용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관광관련 학생들의 특성으로 국한되는 것인지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장래준비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사용하여 결국 주도성과 직무내용에서 뛰어난 진로적응성을 갖는 한국대학생들을 일본대학생들과 비교하면, 한국 학생들이 더 많은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부지역에 근거한 표집의 문제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들은 학업, 셀프리더십,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을 함께 비교하여 위의 논의를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 선택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강은영(2014)「대학생 셀프리더십이 진로개발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선영(2009)「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셀프 리더십의 관련성 및 셀프리더십이 수행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2013)「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직업교육연구』32(6), pp.43-56  
 박종민·심덕섭·양동민·최경주·노현재·김형진(2011)「대학생의 학업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몰입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HRD연구』13(1), pp.117-138  
 방동혁·권용주(2013)「환대산업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이 근무의욕과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리조트를 중심으로」『호텔관광연구』50, pp.434-453  
 신용국(2009)「셀프리더십척도 타당화 연구-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지연·이형룡(2012)「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호텔경영학연구』21(6), pp.231-251  
 양승실·김현진·주경필(2006)「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분석」『직업능력개발연구』9(2), pp.145 -170  
 오정학·육풍림 (2010)「카지노 종사원의 셀프리더십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 다중표본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구조모델 개발」『호텔경영학연구』19(3), pp.61-84  
 劉亨淑·李貞姬(2007)「韓日大學生の「大學進學の動機」と「大學生活の適応」間の關係」『일본근대학연구』18, pp.217-231  
 유형숙·이수분·이정희(2014)「한일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비교연구」『일본근대학연구』46,

pp.352-370

- 이용엽 · 양해술(2012)「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통업 종사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물류학회지』22(2), pp.295-321
- 이종찬 · 홍아정(2013)「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진로교육연구』26(1), pp.69-92
- 이혜영 · 장인순 · 최승혜 · 박승미(2014)「간호조직문화,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가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간호행정학회지』20(2), pp.206-214
- 장영숙 · 김현미(2013)「유치원 기관유형별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미래유아교육학회지』20(4), pp.335-360
- 정은이(2010)「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장애, 진로포부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진로교육연구』23(4), pp.75-91
- 정태연 · 김미애 · 양희옥(2013)「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의 구조관계 분석」『관광경영연구』56, pp.363-388
- 조원섭(2012)「호텔종업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광연구저널』27(3), pp.257-269
- 지명원(2012)「여행사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광연구저널』26(3), pp.211-231
- 최석봉 · 임명서(2012)「대학생의 학업만족과 학습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셀프리더십과 교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를 중심으로」『고객만족경영연구』14(3), pp.65-84
- 한국경영자총협회(2012)「2012년 신입경력사원 채용실태 특징조사 결과」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교육개발원(2012) 취업통계연보, retrieved from <http://cesi.kedi.re.kr>
- 한영석 · 김명소(2010)「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직업교육연구』32(6), pp.43-56
-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pp.585-600
- Houghton, J. D. & Neck, C. P.(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 Manz, C. C., & Neck, C. P.(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3rd ed., Pearson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NJ.
- Manz, C. C., & Sims, H. P. Jr.(1986). Leading self-managed groups: a conceptual analysis of a paradox.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7, pp.141-165
- Manz, C. C., & Sims, H. P. Jr.(2001).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tter-Koehler, San Francisco, CA.
- Neck, C. P. & Manz, C. C.(1996). "Thought self-leadership: The impact of mental strategies training on employee cognition, behavior, and affe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5)
- 潮村公弘 · 阿部晃士 · 篠木幹子 · 鈴木麻理子(2009)「就職情報収集と就職不安認識がセルフリーダーシップと職業観に及ぼす影響」『岩手県立大学社会福祉学部紀要』11(2), pp.13-24
- 金井壽宏(1989)「セルフ・リーダーシップ論の展望」『国民経済雑誌』160(6), pp.85-113

---

논문투고일 : 2014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19일

---

〈要旨〉

한일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교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부산광역시 소재한 2개 대학교(261명)와 일본의 동경·오사카지역의 4개 대학교(2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연적 보상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순으로 셀프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고, 4학년이 3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일본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성별,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위요인에서도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전체 셀프리더십은 일본과 한국이 양국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보면 한국이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 자연적 보상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대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관광관련 대학생의 학업지도와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Comparative Study on Self-leadership Korean and Japanese Tourism Related University Stu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elf-leadership Korean and Japanese tourism related university students. The questionnaire were given to 261 Korean University student and 255 Japanese university student enrolled in tourism department.

The result showed that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Korean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Korean female students. And, The scores of self leadership of Korean graduating seniors was higher than Korean third-year students. In Japanese Stud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third-year students and graduating seniors. Finall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Korean student and Japanese student. However, in comparison specific factor, the scores of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and behavior focused strategies of Korean students was higher than Japanese students.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a basic data to self-leadership competency program through which university student's career educations could be strengthened.